

당신이 자녀들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것은?

그것이 당신이 첫 번째 가치가 된다.

자녀를 키우는 크리스천 부모라면 다음의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한다. "내가 자녀를 키우는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이끌려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18장 19절에 그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신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 18:19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 아브라함의 자식과 식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목표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목적에 부합하는가를 놓고 수시로 목상해야 한다. 혹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자녀 양육에 대한 내 방침 따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따로'라면 하나님을 믿는 삶의 모본이라 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와 다를 바 없다. 요즘 한국 교회의 쇠퇴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한다. 어쩌면 이것은 예견된 길일지 모른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권리를 포기하고, 교회가 크리스천 가정의 자녀들을 직접 교육할 권한을 포기한 것과 관련이 깊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두 기관을 세워주셨다. 바로 가정과 교회이다. 그런데 이 두 기관이 권리와 책임을 방기했다. 가정은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의 주일학교에 일임해버렸고, 교회는 아이들을 직접 가르칠 권리를 포기하고 공교육과 사교육의 영역에 넘겨버렸다. 주중 내내 세속 가치관의 영향권 속에 있는 아이들을 주일에 한 번, 한 시간 남짓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한데 말이다. 많은 크리스천 가정이 자녀 교육의 목표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데 두지 않는다. 세상 경쟁에서 이기고, 물질적으로 보상을 잘 받는 자녀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고등학생 자녀를 학원에 보내기 위해 주일학교나 수련회에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양육 받은 자녀는 자신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신앙과 타협하며 살아도 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부모를 통해서 확인한다. 부모가 세상에서의 성공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보다 우위에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셈이다. 이런 메시지에 익숙하고, 그런 방법으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으며 자란 자녀는 세상의 유혹과 압력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면 쉽게 신앙을 부인하고 쉬운 길, 달콤한 길을 찾아간다. 나는 그렇게 자녀를 세상 속에 잃고 만 부모들의 눈을 어린 이야기를 많이 접했다.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보여준다. 부모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면 그 부모의 최우선 가치는 돈이 된다. 자녀에게 물려주기 원하는 첫 번째가 좋은 교육이라면 그의 최우선 가치는 학벌이 된다. 편안한 삶을 물려주고 싶다면 그것이 그의 첫 번째 가치가 된다. 내가 자녀들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다.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누릴 수 있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이용규의 "가정, 내어드림" 중에서-



창립 1974년 11월 3일

주보 제 43권 47호 2017년 11월 19일

* 표는 일어섬 (Standing if you can)

사회: 박태열 목사

경배와 찬양 (Praise)

* 시작기도 (Opening Prayer)

다같이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같이

대표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이우인 장로

교회소식 (Announcements)

사회자

봉헌 (Offering) 346장 (새찬211장) 1,2,3절

다같이

* 봉헌송 (Offering Hymn) 1장

다같이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사회자

박태익 교육협동목사 추대식

성경봉독 (Scripture) 사도행전 11:19-26

다같이

성가대 찬양 (Choir Anthem)

예함찬양대

설교 (Sermon)

박태익 목사

바나바의 삶을 돌아보며...

파송찬양 (Closing Hymn)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박태열 목사

[예배안내]

주일대예배 / 11am
주일학교 / 11am
중고등부예배 / 11am
EM Worship / 1:15pm

[주중예배/모임]

새벽예배 / 5:30am(화-토)
Acts29 기도 / 6am(주일)
수요예배 / 8pm
속회 / 매달 1회 셋째주
성인성경공부 / 1pm(매달 첫째, 셋째주일)
한국학교 / 3pm-6pm(토)

[다음주일 대표기도]

최종인 장로

교회 / 교우 소식

**오늘 처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 창립 43주년 성령집회 장동찬 목사님 설교가 담긴 mp3 CD가 나왔습니다.
- ◆ 하나님의 은혜 설교 시리즈 말씀이 담긴 mp3 CD가 나왔습니다.
- ◆ **속장 인도자 교육**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 ◆ **11월달과 12월달은 대심방 기간입니다.** 심방 스케줄은 각 속장님과 상의해 주십시오.
- ◆ 이은숙 권사님 남편되시는 이석우 집사님께서 지난 월요일(11/13) 새벽 1시 30분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이은숙 권사님과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 ◆ 친교는 여선교회에서, 제단헌화는 김중열 성도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부서별 소식

[선교부]

- ◆ 오늘 친교후에 선교부 모임있습니다.

월 중 모임 / 행사

11월 19일(일) 2:30pm 속장 인도자 교육

지난 주 일 통계

헌금총액	\$2,091	출석총인원	42
십일조	\$1,270	KM 본예배	32
주정(주일)	\$395	주일학교	7
감사헌금	\$370	EM 예배	3
선교헌금	\$		
주일학교	\$20		
EM	\$36		

새가족 등록절차 안내

- ◆ **남부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에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 ◆ **새가족 등록과정:** 새가족 교육 (4주)과정을 마치시고 담임목사의 심방을 받으시면 속회에 배정이 되시고 남부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등록교인이 되십니다.
- ◆ **새가족 교육일정:** 교회소식란에 교육일정을 공지합니다.
- ◆ **새가족 환영식:** 새가족 교육을 마치신 그 다음주일 본 예배시 환영식을 갖습니다.

11월 친 교 / 헌 화

5	여선교회 / 김중열성도
12	박영자권사 / 김중열성도
19	여선교회 / 김중열성도
26	천춘옥권사 / 조동남권사

교회를 섬기시는 이

담임목사:	박태열		
교육협동목사:	박태익		
지휘자:	연석윤	반주자:	이원희
시무장로:	최종인	이건형	
원로장로:	이우인		
파송선교사:			